

#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김종임<sup>1</sup>, 박민향<sup>2\*</sup>

<sup>1</sup>중원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tial Factors of Nursing Students' Depression: With a Focus on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Jong-Im Kim<sup>1</sup>, Min Hyang Par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C지역의 간호대학생을 2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건강상태,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26.4%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가장 높았으며, 우울수준은 1.74이었다. 우울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 $r=.309, p<.001$ )와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기존중감( $r=-.220, p<.001$ ), 자기효능감( $r=-.365, p<.001$ ), 사회적지지( $r=-.190, p<.001$ )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년, 건강상태,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편안한 학업과 즐거운 대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269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in C City in May and June 202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0.0. Grade, health status, life stress, and self-efficacy significantly affected depression and explained 26.4% of depression variance.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rade, health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chosen major and college life also affected depression, and poor health had the greatest effect.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ife stress ( $r=.309, p<.001$ )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 $r=-.220, p<.001$ ), self-efficacy ( $r=-.365, p<.001$ ), and social support ( $r=-.190, p<.001$ ).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grade, health status, life stress, and self-efficacy are influential factors, and that life stress and self-efficacy are high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The study shows there is a need for specialized programs that reduce depression by targeting life stress and reinforcing self-efficacy so that nursing students can enjoy a comfortable, happy college life.

**Keywords** : Depression,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Social Support, Nursing College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Min Hyang Park(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

email: jalhanda98@hanmail.net

Received August 23, 2023

Revised September 11,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고, 취업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1].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여러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2].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며, 다양한 대학생활 경험과 학업, 장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이다[3].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보다 과중한 학업량, 임상실습 등으로 높은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4],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으며[5], 이 우울은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중 높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울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7],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과 함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8]. 또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를 키워가며 주어진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과 학업 성취감이 높게 나타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우울, 무기력감이 나타나며, 종종 우울로 진행될 수 있어[10] 자아존중감의 이해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으로[11],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성취도가 높아진다[12].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13],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며[14],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개인이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1].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자기효능감과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자기효능감의 강화로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직면한 문제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기능과 환경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2]으

로 작용한다.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개인의 좌절을 극복하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15],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사회적지지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 관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울이나 불안 등은 어떤 부정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인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느낌이나 기분의 상태로[17],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나 죄의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12]. 우울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서의 관심과 흥미를 상실하며,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자살충동까지 이를 수 있다[18]. 우울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19], 여학생 비율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우울 예방 및 관리는 필요하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고 우울과의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관련[12], 학업스트레스와 우울[4], 자기효능감과 우울[11], 우울 관련성[20] 연구 등이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고 증재하기 위해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에서의 과도한 생활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기 쉬운 간호대학생에게 대학생활 관련 변수, 자신감과 관련된 변수, 사회적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증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정도를 알아보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분포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

능감, 사회적지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시에 위치해 있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비밀보장 및 무기명 처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적 사항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설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2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15, 예측변수 9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66명으로 추출되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상 일부 학년의 임상실습과 학교수업 교체시기를 고려하고 부정확한 설문지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총 29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280부이였으며,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6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 경제상태, 성적,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 2.3.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22]가 개발한 역학조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Jeon 등[23]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에 대해 지난 1주 동안의 경험빈도를 '극히 드물게' 0, '거의 대부분' 3점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 산출 문항은 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등[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다.

#### 2.3.2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 등[2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23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항, 학업 문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는 5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2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Jeon[26]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척도의 구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개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다.

#### 2.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herer 등[2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Hong[2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로 구성되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역산출 문항 13문항을 포함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2.3.5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Park[2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도구 중 Heo[30]가 재구성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의 사회적지지의 각 하위영역으로 친구지지 5문항, 가족지지 5문항, 교수지지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성적,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9)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6	17.1
	Female	223	82.9
Age(yr)	19-21	124	46.1
	22-24	123	45.7
	≥25	22	8.2
Grade	1st grade	68	25.3
	2nd grade	70	26.0
	3rd grade	69	25.7
	4th grade	62	23.0
Course Credits	Top level (up to 30% of top)	78	29.0
	Midrange	148	55.0
	Lower level (less than 30%)	43	16.0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62	23.0
	Good	142	52.8
	Usually	65	24.2
Health	Very healthy	53	19.7
	Health	144	53.5
	Usually	63	23.5
	Bad	9	3.3
Family economic status	Lack	19	7.1
	Usually	160	59.5
	Relaxation	56	20.8
	Very relaxed	34	12.6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50	18.6
	A little satisfied	126	46.8
	Common	80	30.0
	A little unsatisfied	11	4.6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5	5.6
	A little satisfied	111	41.3
	Common	127	47.2
	A little unsatisfied	16	5.9
Total		269	100.0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46명(17.1%), 여자가 223명(82.9%)이었으며, 나이는 19세-21세가 124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22세-23세 123명(45.7%)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 68명(25.3%), 2학년 70명(26.0%), 3학년 69명(25.7%), 4학년 62명(23.0%)으로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중위권 148명(55.0%), 상위권 78명(29.0%)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 좋음' 142명(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좋음, 62명(23.0%). '보통' 65명(24.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는 군이 144명(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건강'하다는 군이 53명(19.7%), 건강상태가 '보통'인 군 63명(23.5%), '나쁨'인 군 9명(3.3%)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에서는 '보통' 160명(59.5%), '여유 있는' 56명(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약간 만족' 126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80명(30.0%), '매우 만족' 50명(18.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 127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만족' 111명(41.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 3.2 대상자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수준

대상자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울의 전체 평균은 1.74점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1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대인관계'의 평균은 1.94점, '경제문

제'의 평균은 1.90점, '장래문제'의 평균은 2.6점, '가치관문제'의 평균은 2.36점, '학업문제'의 평균은 3.08점으로 나타나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2.13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의 전체 평균은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친구지지'의 4.04점, '가족지지' 4.17점, '교수지지' 3.21점으로 가족지지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울은 나이( $F=3.02, p=.050$ ), 학년( $F=5.05, p=.002$ ), 건강상태( $F=7.58, p<.001$ ), 전공만족도( $F=2.93, p=.013$ ), 대학생활 만족도( $F=2.51, p=.029$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나쁨' 군의 우울의 평균은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은, 매우 좋은 군보다 높았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족' 하는 군에서 1.9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군 1.58점, 전공 만족도 '보통'인 군 1.84점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전공에 '불만족'하는 군이 전공에 '만족'하거나 '보통'인 군보다 우울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p=.013$ ).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대학생활에 '불만족' 하는 군에서 1.93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군 1.47점, 대학생활 만족도가 '보통'인 군 1.80점으로 나타났다. 사

Table 2. Level of depression,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social support (N=269)

Variables		M±SD	Range
Depression		1.74±.56	1-4
Life Stress	Human relationship	1.94±.65	1-5
	Economic problem	1.90±.79	1-5
	Future problem	2.67±.73	1-5
	Value issue	2.36±.77	1-5
	Academic problems	3.08±.83	1-5
	Total	2.14±.47	
Self-esteem		2.13±.61	1-5
Self-efficacy		3.40±.60	1-5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4.04±.63	1-5
	Family support	4.17±.75	1-5
	Professor's support	3.21±.59	1-5
	Total	3.81±.51	1-15

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9)

Variables		Depression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Social support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1.67±.52	.051	.329	2.20±.51	.816	.415				2.90±.34	5.44	.020	3.73±.55	1.39	.238
	Female	1.76±.57			2.13±.46						2.99±.39			3.82±.51		
Age(yr)	21-22	1.81±.57	3.02	.050	2.13±.43	1.85	.158	2.17±.60	.412	.662	2.98±.39	.148	.863	3.83±.46	.671	.512
	23-24	1.72±.55			2.13±.44			2.10±.62			2.97±.39			3.82±.57		
	>25	1.50±.48			2.33±.57			2.10±.64			2.93±.25			3.7±.49		
	Duncan	c<b<a														
Grade	1st grade <sup>a</sup>	1.70±.56	5.05	.002	2.10±.44	.878	.455	2.10±.53	2.81	.040	3.01±.35	.616	.505	3.81±.46	.140	.756
	2nd grade <sup>b</sup>	1.95±.54			2.18±.40			2.30±.60			2.99±.40			3.83±.46		
	3rd grade <sup>c</sup>	1.72±.59			2.10±.47			2.09±.68			2.91±.41			3.79±.60		
	4th grade <sup>d</sup>	1.59±.47			2.20±.57			2.01±.59			2.97±.36			3.80±.53		
	Duncan	a,c,d<b						d<c,a<b								
Course Credits	Top level <sup>a</sup>	1.66±.50	1.47	.231	2.05±.49	2.08	.126	2.01±.65	2.26	.106	2.96±.40	.394	.697	3.98±.49	6.85	.001
	Midrange <sup>b</sup>	1.79±.58			2.17±.45			2.17±.57			2.97±.39			3.73±.47		
	Lower level <sup>c</sup>	1.72±.59			2.21±.49			2.22±.64			3.02±.32			3.75±.62		
	Duncan													b,c<a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sup>a</sup>	1.67±.56	1.70	.183	1.99±.50	11.65	<.001	2.35±.55	15.96	<.001	2.93±.49	.761	.493	4.09±.48	15.89	<.001
	Good <sup>b</sup>	1.73±.55			2.11±.46			2.18±.60			2.98±.34			3.77±.49		
	Usually <sup>c</sup>	1.85±.56			2.37±.38			1.79±.56			3.01±.34			3.61±.50		
	Duncan				a,b<c			b,c<a						c<b<a		
Health	Very healthy <sup>a</sup>	1.58±.48	7.58	<.001	2.01±.49	5.05	.002	2.76±.57	6.65	<.001	3.19±.32	1.73	.086	4.02±.50	3.98	.009
	Health <sup>b</sup>	1.71±.54			2.11±.40			2.25±.58			3.02±.32			3.74±.50		
	Usually <sup>c</sup>	1.85±.57			2.33±.50			2.12±.59			2.94±.35			3.78±.52		
	Bad <sup>d</sup>	2.45±.67			2.18±.54			1.97±.60			2.98±.48			3.72±.48		
	Duncan	a,b,c<d			a<b,d<c			b,c,d<a			d<b,c<a					
Family Economic status	Lack <sup>a</sup>	1.60±.47	1.32	.167	2.36±.38	6.55	<.001	2.19±.52	1.60	.188	2.86±.47	1.22	.303	3.78±.43	1.12	.339
	Usually <sup>b</sup>	1.80±.57			2.21±.45			2.19±.57			3.00±.35			3.77±.48		
	Relaxation <sup>c</sup>	1.67±.56			2.03±.48			2.00±.71			2.97±.42			3.84±.53		
	Very relaxed <sup>d</sup>	1.69±.56			1.90±.48			2.03±.66			3.00±.30			3.94±.62		
	Duncan				d<b,c<a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up>a</sup>	1.58±.52	2.93	.013	1.89±.40	9.05	<.001	2.35±.58	9.10	<.001	3.00±.28	.861	.462	4.09±.39	12.77	<.001
	A little satisfied <sup>b</sup>	1.72±.54			2.13±.47			2.32±.56			3.01±.40			3.95±.40		
	Common <sup>c</sup>	1.84±.59			2.27±.46			2.12±.62			2.96±.35			3.57±.35		
	A little unsatisfied <sup>d</sup>	1.97±.53			2.48±.43			1.79±.53			2.91±.39			3.8±.28		
	Duncan	a<b,c<d			a<b,c<d			b,c,d<a						c,d<b<a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up>a</sup>	1.47±.47	2.51	.029	2.02±.70	.658	.576	2.08±.38	2.35	.072	3.06±.68	.857	.464	3.39±.42	11.9	<.001
	A little satisfied <sup>b</sup>	1.69±.52			2.12±.43			2.06±.62			2.95±.37			3.90±.49		
	Common <sup>c</sup>	1.80±.59			2.18±.47			2.23±.58			3.00±.34			3.68±.47		
	A little unsatisfied <sup>d</sup>	1.93±.51			2.12±.51			1.91±.85			2.97±.36			3.62±.63		
	Duncan	a<b<c,d												a,b,c<a		

후분석 결과 대학생활에 '불만족'하는 군이 대학생활에 '만족'하거나 '보통'인 군보다 우울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p=.029$ ).

생활스트레스에서는 대인관계( $F=11.65, p<.001$ ), 건강문제( $F=5.05, p=.002$ ), 경제문제( $F=6.55, p<.001$ ), 전공만족도( $F=9.0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 $p<.001$ ). 건강문제에서는 건강이 '나쁜' 군이 건강이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으며( $p=.002$ ),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나쁜' 군이 경제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 $p<.001$ ).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인 군이 '매우 만족'하거나 '보통'인 군 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p<.001$ ).

자아존중감에서는 대인관계( $F=15.96, p<.001$ ), 건강문제( $F=6.65, p<.001$ ), 전공만족도( $F=9.10,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매우 좋은'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p<.001$ ), 건강문제에서는 '매우 좋은' 군이 건강이 좋거나 보통인 군, 나쁜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p<.001$ ).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보통'이거나 '불만족'인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p<.001$ ).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 $t=5.44, p=.020$ ), 건강문제( $F=1.73, p=.086$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은' 군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쁜' 군보다 높았다( $p=.086$ ).

사회적지지에서는 성적( $F=6.85, p<.001$ ), 대인관계( $F=15.89, p<.001$ ), 건강문제( $F=3.98, p=.009$ ), 전공만족도( $F=12.77, p<.001$ ), 대학생활 만족도( $F=11.9,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이 '상위권'이 '중위권', '하위권'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좋은' 군이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보통'이거나 '불만족'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보통'이거나 '불만족'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p<.001$ )(Table 3).

### 3.4 대상자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r=.309, p<.001$ )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r=-.220, p<.001$ ), 자기효능감( $r=-.365, p<.001$ ), 사회적지지( $r=-.190, p<.001$ )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r=-.211, p<.001$ ), 자기효능감( $r=-.310, p<.001$ ), 사회적지지( $r=-.261, p<.001$ )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 $r=.229, p<.001$ ), 사회적지지( $r=.161,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r=.143,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 3.5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나이, 학년,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우울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공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depression,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social support (N=269)

Variables	Depression		Life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r	p	r	p	r	p	r	p
Depression	1							
Life Stress	.309**	<.001	1					
Self-esteem	-.220**	<.001	-.211**	<.001	1			
Self-efficacy	-.365**		-.310**	<.001	.229**	<.001	1	
Social support	-.190**	<.001	-.261**	<.001	.161**	<.001	.143**	<.001

\*\*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N=269)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18.52	8.84		11.66	<.001
Age(yr)	-3.231	1.39	-.182	-2.319	.011
Grade	.660	.779	.065	.826	.410
Health	1.573	.864	.104	1.821	.020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1.182	.990	-.082	-1.194	.234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1.821	1.104	.112	1.649	.100
Life stress	.082	.028	.174	1.941	<.001
Self-esteem	.435	.118	.302	4.682	.003
Self-efficacy	-.134	.052	-.166	-2.547	.005
Social support	.079	.088	.242	.896	.271

R<sup>2</sup>=.288, Adj R<sup>2</sup>=.264, F=11.66, p<.001

\*Dummy variable reference group: Grade: Freshman, Health: Good,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834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78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13-1.436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상 값을 확인하기 위한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적합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수로 하여 우울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66, p<.001), 우울을 수정된 R<sup>2</sup>는 26.4% 설명하였다. 생활스트레스(β=.174, p<.001), 자아존중감(β=.302, p=.003), 자기효능감(β=-.166, p=.005)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우울의 수준을 확인해보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우울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 우울의 평균은 1.7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12]의 평균 2.09점보다 적고, Choi[20]의 1.34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돌봄 제공자로서 우울로 인해 유해한 돌봄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7]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우울 측정 도구를 고려하여 반복 연구도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나이, 학년,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년에서 우울의 차이는 2학년과 3학년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나 2학년에서 우울이 높았다는 선행연구[31]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교과목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와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시기에서의 부담이 우울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상태에서의 우울의 차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군이 건강상태가 좋은 군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나 Yu 등[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경증 우울 군에 비해 중증 우울 군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한 Koh 와 Jeon[32]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가 필요하겠다.

또한, 성별은 여학생이 우울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19]에서도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을 불만족하는 군이 우울이 높아, 전공만족도가 낮은 군이 우울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12]와 일치하였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 학교생활 적응이나 흥미가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확인과 함께, 대학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지지자원을 연결해주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우



울 위험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평균은 2.14점으로 선행연구 Yoo[2]의 2.56점, Choi[20]의 2.38점보다는 약간 낮고, Park과 Jeong[33]의 2.25점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학업 스트레스가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2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는 대인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5]에서도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13점으로 Lee와 Kim[9]의 연구에서 3.17점, Kim과 Kim[3]의 연구에서는 3.1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조금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에서는 대인관계, 건강문제,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0]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전공만족과 학업성취감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1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과 학업 성취감이 높게 나타나며[3],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34], 종종 우울로 진행될 수 있다[10]. 이에 간호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0점으로 Lee와 Lee[12]의 3.39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5]의 3.37점과 유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36].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우울 정도와 스트레스가 낮아진다[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성별, 건강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13]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14]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

생들이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3.81점으로 Yoo의[2] 4.12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Park과 Jeong[33]의 3.86점과는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으로 가족지지가 4.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수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는 성적, 대인관계, 건강문제, 전공만족도, 대학생학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Cho[1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의 지원을 위해서는 친구, 가족, 교수들로부터 인정받고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가 우울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 체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우울의 예방요인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나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37]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 건강상태,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6.4%였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의[2] 30.0%보다 낮았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12]의 20.0%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 생활스트레스 관리와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우울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내, 외적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년, 건강상태,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체의 설명력은 26.4%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우울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년, 건강상태,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관련성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은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중증 우울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즐거운 대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강화 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우울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다는 것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상담, 학습지도 및 학교생활 관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할 수 있는 간호 중재 방안을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낮출 수 있는 내적 요인과 우울예방 프로그램 관리 및 효과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1] S. H. Byun, H. J. Park, "The relationship of life stress, anger, and optim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2, pp.150-160,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12.150>

- [2] K. H. Yoo, "A Medi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for college life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125-135, 201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125>
- [3] J. S. Kim, S. U. Kim, "Converged study on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5, pp.48-54,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5.048>
- [4] S. W. Jung, R. H. Hwang, Y. S. Le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4, pp.265-272,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4.265>
- [5] K. H. Yoo,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3 pp.269-278,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69>
- [6] K. H. Kim, K. H. Kim, "Anger,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female students in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0, No.3, pp.233-241, 2011.
- [7] S. J. Yu, M. R. Song, E. M.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0 No.1, pp.71-80,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71>
- [8] O. H. Ko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 7, pp.172-182,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7.172>
- [9] J. G. Lee, J. K.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475-481,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475>
- [10] S. H. Kim, S. H. Park, M. J. Baek, "Mediating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nunch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30, No.1, pp.1-8, 2021.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21.30.1.1>
- [11] I. S. Jung,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5 pp.51-58,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5.051>

- [12] J. S. Lee, S.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4 pp.239-248, 2016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4.239>
- [13] K. A. Kang, H. Y. Cho,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210-218,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210>
- [14] S. H. Choi, "Effects of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1 pp.148-156,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148>
- [15] J. Bowlby, "The Bowlby-Ainsworth attachment theor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2, No.4, pp.637-638, 1979.  
DOI: <https://doi.org/10.1017/s0140525x00064955>
- [16] M. H. Cho,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7, pp.587-600,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7.587>
- [17] J. Battl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Vol.42, pp.745-746, 1978.  
DOI: <https://doi.org/10.2466/pr0.1978.42.3.745>
- [18] S. J. Garlow, J. Rosenberg, J. D. Moore, A. P. Haas, B. Koestner, H. Hendin, and C. B. Nemeroff, "Depression, desper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results from the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College Screening Project at Emory University," *Depression and anxiety*, Vol.25, No.6, pp.482-488, 2008.  
DOI: <https://doi.org/10.1002/da.20321>
- [19] K. S. Lee, C. K. Koh, J. H. Kim, H. M. Son, M. R. Song, S. J. Yu, et al.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0, No.2, pp.112-121, 2013.
- [20] S. K. Choi,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5, pp.257-266,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57>
-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2]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No.3, pp.385-401. 1977.  
DOI: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23] G. G. Jeon, S. J. Choi, B. C. Yang,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Korean version of CES-D",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Vol.16, No.1, pp.59-76, 2001.
- [24] K. K. Chon, K. H. Kim, J. S. Lee,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pp.316-335. 2000.
- [2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26]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Research Institute*, Vol.11, No. 1, pp.107-130, 1974.
- [27] M. Sherer, J. E. Maddux, B. Meracndante et al,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Vol.51, No.2, pp.663-671. 1982.  
DOI: <https://journals.sagepub.com/doi/10.2466/pr0.1982.51.2.663>
- [28]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Master's thesis, 1995.
- [29] J. W.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85.
- [30] Y. S. Heo, "*A Study on Perceived Happiness of Adolesc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31] S. J. Yu, M. R. Song, E. M.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71-80, 2014.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4.20.1.71>
- [32] J. R. Koh, J. H. Je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4, No.4, pp.80-390, 2022.  
DOI: <https://doi.org/10.7475/kjan.2022.34.4.380>
- [33] E. J. Park, G. S. Jeong,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3, pp.153-162, 2020.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0.8.3.153>
- [34] M. H. Nam, M. R. Le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527-536, 2016.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6.22.4.527>
- [35] S. O. Kim,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ositive

think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35-444,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35>

- [36] A. R. Ghaderi, B. Rangaiah,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mong indian and iranian students”,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Vol.6, No.2, pp.231-240, 2011. Available from: [https://api.semanticscholar.org/CorpusID:151923919?utm\\_source=wikipedia](https://api.semanticscholar.org/CorpusID:151923919?utm_source=wikipedia)
- [37] Y. S. Choi, M. A. Kim, “The Effect of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program on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

---

박 민 향(Min-Hyang Park)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 2022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질환간호, 아동건강증진